

마을주민이 '정보원', 새소리 있는 곳에 그가 있다

새소리 녹음한 유희상 인터뷰



녹음전문가 유희상(41) 씨는 전국 각지에 친구를 둔 사람이다. 9인승 승합차 안에 이불이며 옷가지, 녹음장비를 싣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 게 20년째고, 두 번 이상 찾아가면 마을도 한두 곳이 아니니 오지 마을주민들은 그를 한동네 사람으로 안다. 주민들 스스로 “새가 왔으니 빨리오라”고 연락해 주는 연락병 겸 자원군을 자청할 정도다.

“광릉 수목원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과수원을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과 친해졌고 새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1985년에 잠깐 한국 거미연구소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20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필드에서 새소리, 곤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KBS 환경스페셜, EBS 자연다큐 제작에 참여하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자문을 꾸준히 해온 그는 이미 새소리 녹음 분야에서는 달인이다. 책이며 사진, 영상물까지 자연 생명체를 담아내려면 필드에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필요한데 유희상 씨만큼 생명체의 생태를 발견하는 데 익숙하고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도 흔치 않다. 71 종류의 새소리를 CD에 담고 그 새의 특성을 책에 담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새소리 백가지》도 약 10여 년간 유희상 씨의 현장경험들을 담아낸 멀티북이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60일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새벽에 우는 새소리를 녹음하려고 밤을 새운 날도 하루이틀이 아니었죠. 고맙게도 아내의 제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전화통화 한 번 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가 새소리를 녹음하러 다니게 된 데는 어릴 적 마을 뒷산에서 만난 크낙새와의 추억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동네에서 썩은 나무 사이로 들어간 벌레를 잡아먹던 크낙새를 발견한 그는 이후 다른 지역에서 그 크낙새를 다시 만나면서 내가 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가 나를 찾아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새와의 만남이 ‘숙명’이라는 믿음으로 지금껏 파라폴라라는 음향기기를 들고 새소리를 찾아다녔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새소리 녹음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주변에 자동차가 많거나 소음이 많아서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고, 계곡의 물소리 때문에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번은 진부령 자락 용대리에 새벽에 녹음을 하러 들어갔다가 큰일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었는데 보초를 서고 있던 군인이 총을 겨누더군요. 그 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랐지요.”

이런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이 일을 놓지 않은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는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천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음악소리보다 듣기 좋은 새소리의 매력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한다. 생명을 사랑하는 만큼 환경보호에 대한 뜻도 남다른 그는 포천에 있는 자신의 카페에 ‘새둥지 박물관’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다.

강원도 철원의 민통선 부근에서 재두루미 소리를 담다가 김포에도 재두루미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그는 <출판저널>을 통해 자신의 책을 처음 책을 받아보았을 만큼 꽤 오랫동안 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다.

“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책과 시디를 통해 많은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주5일 근무제를 하니깐 그냥 책만 보지 말고 들판이든 산이든 나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족끼리 확인해 보는 즐거움도 누리고 생명의 신비로움, 환경 보존의 필요성도 느꼈으면 합니다.”

다행히 눈에 불을 켜고 김포로 달려온 유희상 씨의 마음을 아는 듯 농경지 하늘 위로 네 마리 재두루미가 지나갔다. 유희상 씨는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며 “내일쯤이면 집에 갈 수 있겠군요”라고 덧붙이며 쌍안경을 꺼내들었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